

“힘든 싸움 걱정... 희망의 끈 놓지 말기를”

“불교계 독립운동 유공포상자 84명”

이동언 소장, 불교사회연구소
3·1운동과 항일 세미나서 밝히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유공 포상자는 총 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전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은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 주최로 지난 6월3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열린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1차 학술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포상자를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한 독립운동 계열별로 살펴보면 국내항일 45명, 3·1운동 30명, 임시정부 3명, 의병 2명, 만주방면 2명, 중국방면 1명, 의열투쟁 1명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이 치열하게 투쟁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미나에서 ‘대일항쟁기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항배’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포상자 명단을 발표한 이동언 소장은 “대일항쟁기 불교계 민족운동은 의식 있는 스님들에 의해 끊임없이 추진되었다”며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의 연락처 및 근거지로 역할을 했고 스님들이 군자금 모집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러나 산사(山寺)의 일이라 이를 증명할 자료 발굴이 어려워 불교계의 독립운동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료수집과 발굴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1919년 3·1운동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투신한 불교계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자들은 한용운, 백용성스님 정도만 유명한 현실을 꼬집으며 불교계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다양한 연구방법 도입을 역설했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불교계의 3·1운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2017년부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까지 3·1운동 백주년기념 학술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장 일감스님은 “3·1운동 전후 불교계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걸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영섭 기자 tuel@i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

총무원장 스님, 철도노조 방문
‘복직투쟁’ KTX 여승무원 격려
“그 희망의 끈에 힘 보태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4000일 넘게 복직 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들을 격려했다. 장시간 이어온 힘든 싸움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6월2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5층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등을 비롯해 복직 투쟁 중인 여승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해운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등이 함께 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계약적으로 고용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겨 재계약하라고 제안했고, 여승무원들이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2008년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최종 패소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면서 1심, 2심 승소로 받았던 임금과 소송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인당 8640만원과 이자까지 포함해 약 1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6월28일 현재 33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06년 3월1일 파업을 시작한 지 4138일째 싸우고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자비나눔 방문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비나눔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 낮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저희들은 문제 해결 전까지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사에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 마음이 답답했다. KTX 여승무원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긴긴 세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며 그 희망의 끈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으로 마련한 금일봉을 김승하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월2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사진 오른쪽),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가운데) 등을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탄자니아로 가는 신발

전국서 5000켤레 답지

우리나 뒷조각이 있는 흙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놀며 생활하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한 신발이 탄자니아로 출발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월29일 조계종 전법회관 구 조계종출판사 유통창고에서 신발 상차식



을 가졌다.〈사진〉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한 신발은 아름다운동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아프리카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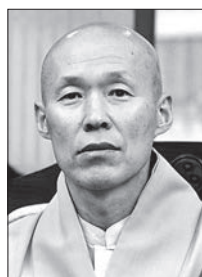
자니아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캠페인을 통해 청양 안심사 400켤레, 의정부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영석고 150켤레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정성이 답지하면서 약 5000켤레의 신발이 모였다.

한편 이날 상차식을 통해 화물차량에 실린 신발들은 배를 통해 약 한 달 뒤 탄자니아에 도착하며,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인근 마을 어린이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작지만 희망 됐으면”

문수사 올해도 청소년 장학금



서울 문수사 주지 태성스님(사진)이 지난 6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에 장학기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사찰 운영에도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잇기 곤란한 지역사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성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태성스님은 “작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매년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문수사는 매년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나눔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6월28일 중무회외)



효진스님
인천 능해정사



지성스님
의성 석불사



운성스님
대구 용화사



진현스님
하동 보문사



성진스님
부안 내원암

불기2561(2017)년 하안거 직할교구 4차 포살 변경 안내

불기2561(2017)년 하안거 직할교구 4차 포살이 중단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포 살 명 : 2017년 하안거 직할교구 4차 포살
- 변경일자 : **변경 전** 2017년 7월 6일(목) 오후3시



변경 후 2017년 7월20일(목) 오후3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문 의 : 직할교구사무처 ☎ 02-2011-1930~2)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나무대 방광불화엄경 (3번)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아름다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나 화장장엄 세계요,
이대로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참 불자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 속에
제1회 화엄사상 조계종 전계대화상 석성우 큰스님초청 보살계 산림대법회
불기2561(2017)년 10월 21일(음, 9월 2일) 토요일 10시

전 조계종 원로의장 현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 초청
남화사 화엄회상 100일 화엄경 수행법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입 재 : 2017년 7월 14일(음 5월 21일) 금요일 10시
- 하 루 세 번 :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능엄신주, 약찬계, 화엄경수행법)
- 강 설 : 화엄경 제1권 세주묘엄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보살계수계산림 : 2017년 10월 21일(음 9월 2일) 토요일 10시

※ 도심 속 산중사찰로 숙식도 가능하며 1박은 2만원, 1개월은 50만원(단, 강의만 듣고자 하는 분은 월 5만원)
※ 1인 1등 1만원, 10인 이상 동참자는 강의료 무료

남화사 유튜브 화엄경 수행법(https://www.youtube.com/watch?v=SPVi3vLkBY)

금오산 남화사 (경북 구미시 선기로 3길 38-37, 054-452-6568 / 010-3540-6588)